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의 관계성 연구

-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

A study for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relationship of relative factors -concentrating o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self-regulation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윤진주* · 강신영 · 이복주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 원광대학교 유아교육학과

Youn, Jin-Ju* · Kang, Shin-Young · Lee, Bok-Ju

Wonkwang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 Wonkw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associated relative factors, so that we set young children's temperament,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mother's parenting efficacy, and mother's parenting behavior as associated relative factors. Therefore, we researched how these associated relative factors could affect young children's aggression. Subjects were 350 young children and their mothers who were attending nine kindergarten in I-city and J-city, Jeonlabuk-do. Statistics and method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Cronbach's alpha,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are as followings: First, as we researched into the correlation between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associated relative factors, we found that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 in young children's temperament and mother's parenting efficacy, mother's indulgent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nd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Second, as we researched into the efficacy between young children's aggression and associated relative factors, we found that young children's aggression was directly affected by young children's active character that is one of young children's temperaments, young children's self-regulation ability, mother's active involvement in parenting behavior, mother's indulgent and permissive parenting behavior, and mother's controlled parenting behavior. That is, young children's aggression was 22% affected by these associated relative factors.

Key Words : aggression, temperament, self-regulation, parenting efficacy, parenting behaviors

I. 서론

최근 우리사회 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는 폭력이나 공격적 행동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이다. 공격성과 같은 반사회적 행동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더욱 강화되는 경향이 있고 행동의 형태는 다르지만 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지속적이어서 유아기에 습득된 행동의 연장 또는 확대된 경향으로 여러 사회심리적 문제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remblay, 2000). 이러한 반사회적 행동을 보이는 유아는 신체적·사회

적·개인적인 여러 측면에서 부적응의 문제를 나타내며 외현적으로도 부적절하고 공격적이거나 또는 위축된 행동들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일상적인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 따라서 반사회적 행동의 예방적 차원에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공격성은 단지 관찰할 수 있는 특성 및 행동만을 가지고 정의하는 것과 공격자의 의도 및 동기를 포함시켜 정의하는 방식이 있다. Buss(1963)는 공격성이란 유기체에게 유해한 자극을 가하는 반응이라 정의하였으며, Feshbach(1963)는 타인의 물건이나 타인을 해치는

* Corresponding author: Youn, Jin-Ju
H.P: 016-563-0653
E-mail: juju0653@wonkwang.ac.kr

행위로, 그리고 Bandura(1973)는 신체적·심리적으로 사람을 상처내어 해를 입히거나 물건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박정순, 1999, 재인용). 이에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공격성은 반응자의 특성과 공격자의 의도 및 동기를 포함하며, 타인을 상해할 의도와 타인을 지배 또는 통제하려고 하는 욕구의 행동으로 정의한다.

공격성의 유형은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어 제시되고 있다.

Crick과 Grotpeter(1995)는 공격성에 따른 성차를 가정하고 공격유발 대상에게 직접 신체적·언어적 공격을 행하는 외현적 공격성(externalizing aggression)과 집단이나 압력을 이용하여 개인의 감정이나 관계를 손상·위협함으로써 남에게 해를 주는 간접적인 형태의 관계적 공격성(relational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Dodge와 Coie(1987)는 위협이나 도발을 느끼게 한 대상에 대한 일종의 분노, 반응 및 방어적인 성격의 반응적 공격성(reactive aggression)과 공격행동을 통해 구체적인 보상을 획득하려는 수단적 성격의 주도적 공격성(proactive aggression)으로 구분하였다. 박성연(2002)은 타인에게 겁을 주거나 위협하는 주도적 공격성과 타인을 무시하거나 말을 하지 않는 관계적 공격성, 그리고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 반응적 공격성으로 구분하였다. 그 외에도 신체적, 언어적, 직접적, 간접적 공격성(Frodi, Macaulay, & Thome, 1977)과 수단적, 적대적 공격성(Feshbach, 1963)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하여, 유아의 개인적 특성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성을 유발시키는 원인으로는 환경을 융통성 있게 조절하여 자신의 발달을 도모하게 하는 유아의 개인변인은 물론,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이나 양육행동과 같은 환경변인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공격성에 관련되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으로는 기질과 자기조절 능력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기질은 유아들의 행동을 특징짓는 기본적인 행동 양식을 뜻한다. 성격 심리학 분야에서 기질을 연구한 가장 대표적인 학자는 Buss와 Plomin으로 '성격발달에 관한 기질이론'에서 유아기 초기에 나타나는 성격특성으로 기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개별성의 필수적인 기초는 사회성·정서성·활동성·충동성의 네가지 기질이라고 보았으나 이들의 추후연구에서 충동성은 유전성에 대한 논란으로 인해 제외되기에 이른다(임희수, 1994). 기질 중 사회성이란 사람들과 쉽게 접촉을 시도하는 것을 말하며, 사회성이 높은 유아는 사교적이며 혼자

있는 것을 싫어하고 낯선 사람에게도 쉽게 접근하는 특성이 있다. 정서성은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유아의 기질 특성이며, 유아가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활동성은 유아가 일상생활에서 보이는 행동의 속도와 강도를 의미하는데 활동성이 높은 유아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계속 움직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 격렬한 활동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기질의 특성을 말한다.

유아 자신의 고유한 특성 중 개인차의 본질로 간주되어 온 기질은 Thomas와 Chess의 New York Longitudinal Study를 통해 유아의 기질은 선천적인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인간발달 초기에 나타나는 행동적 특성과 이후의 발달은 관계가 있음을 밝힌 후, 유아기에 나타나는 기질적 성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기질이론이 함축하고 있는 것은 조화의 적합성 개념으로서 이는 환경 특성과 환경이 기대하고 요구하는 바가 유아 자신이 지니는 능력, 특징, 그리고 행동유형과 조화가 이루어져야 한다(원영미, 1990).

최근에는 까다로운 기질과 어머니-자녀 관계간에 이루어지는 조화의 적합성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권위주의적, 적대적, 체벌적인 양육을 받을 때 공격적인 행동이 증진될 수 있지만,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유아들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유해한 영향에서도 잘 견뎌 낸다(Kokanska, Coy, & Murray, 2001). 또한 활동성 기질이 높은 유아일수록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고, 또래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주위가 산만하여 또래간에 갈등이 자주 나타난다(홍계옥, 2001). 즉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또래간에 문제가 많고, 행동적 문제와 사회화 문제를 더 쉽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Walker, Berthelsen, & Irving, 2001). 이와 같은 맥락에서 기질의 한 부분으로 정서조절을 다루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의력 및 통제능력이 낮고 정서의 강도가 높은 유아는 분노와 좌절을 공격적인 행동이나 감정발산의 행동과 같이 겉으로 표현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Blick, 1980). 결과적으로 유아의 기질에 관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까다로운 기질의 유아는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이나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기조절 능력은 유아 스스로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상위인지 능력이다. 자기조절 능력은 자기통제와 자기점검 능력으로 구분되며 이는 모두 인지적이며 자의적인 조절능력이다(이정란, 2003).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유아는 사려성이 결핍되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며, 사회적·정서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나아가서는 폭력과 일탈을 일삼는 반사회적 행동들과도 관련이 있다(Goodman, Brogan, Lynch, & Feilding, 1993). Plakowski(1994)도 낮은 자기 통제력은 인생초기의 공격성이나 싸움과 같은 행동에 의해 유의미하게 설명되어지며 적어도 3~4년간은 안정성을 띠지만 후에 범죄판결을 받는 것과 같은 심각한 행동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미경(1996), 이정란(2003)은 자기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합리적 양육행동은 자기조절 능력의 모든 구성요인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자기조절 능력은 양육행동을 매개로 공격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최근에 어머니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Siegel(1985)과 McGillicuddy-De Lisi(1985)가 제안한 신념-행동 패러다임을 기초로 어머니를 사고하며 행동하는 존재로 인식하여 어머니의 신념, 기대, 인식, 효능감과 같은 인지적인 변인을 행동적인 변인과 함께 연구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Goodnow, 1988; Miller, 1988, 전인옥, 이경옥, 1999, 재인용). 이러한 연구경향은 행위주체의 마음과 사고과정을 이해하고자 하는 사회 인지적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환경적 변인으로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인 양육효능감과 행동적 변인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떠한 행동이나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을 의미하며, 어떠한 활동을 선택하고 선택된 목표를 향해 노력을 기울이게 하고, 어려움에 직면할 경우 그 활동을 지속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Bandura, 1986). 이러한 효능감을 양육의 차원에서 적용시킨 양육효능감은 부모로서 자신의 수행능력에 대한 기대와 판단으로 부모 역할에 대한 적응을 돕고 자녀 양육과 연관되는 문제나 어려움을 잘 관리해 나가도록 동기를 제공하며 양육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작용을 하는 인지적 특성이다(Teti & Gelfand, 1991). 양육효능감이 높은 부모는 유아의 바람직한 발달과 관련되는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보여주며 동시에 유아의 사회적·심리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Dorsey, Kelin, Forehand, &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부모 또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말한다. 반사회적 행동이나 비행은 대부분 유아기 내지 아동기에 학습되며 특히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습득되는 것으로 유아의 행동과 높은 관련이 있다(Loeber & Hay, 1997).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공격적인 아이는 성장과정에서 학대를 받았거나 부모가

배우자나 다른 형제를 학대하는 것을 목격함으로써 공격적 행동을 하는 시기와 방법들을 학습하게 된다고 한다. 특히, 여러 변인 중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아주 강력한 공격적 모델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자녀는 부모의 행동을 자주 접하며 다른 매체들에서 묘사되는 공격행동 보다 더욱 생생하게 직접적으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정은희, 이미숙, 2004). 이러한 경험을 한 유아들은 폭력이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에서 받아들여지는 행위이며, 목표달성을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여기게 된다(전효정, 2001). 유아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공격성 수준이 높아진다(김민정, 도현심, 2001; 박민정, 최보가, 2004; 정준미, 1998; Hart, Nelson, Robinson, Olsen, McNeilly-Choque, Porter, & McKee, 2000).

박성연(2002)은 아버지와 남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계를 알아본 결과, 아버지의 공격성 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들에게 강압적인 행동·공격성 조장 행동과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대체로 아버지의 애정적인 행동과는 관련이 없다고 하였다. 즉,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동은 유아에게 공격적인 행동양상을 형성시킬 뿐 아니라 지속시키고 더 나아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있어서도 부정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등 부모의 행동은 다음 자녀세대로 전이되어 세대간의 일관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Belsky, Hsieh, Jaffe, & Silva, 2001; Tremblay, 2000). 그러므로 부모의 거부적인 양육행동은 유아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하게 하여 공격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하였으며(이원영, 1983),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사회적 능력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공인숙, 1989). 그러나 박성연, 고은주(2004), Pery, Kusel와 Pery(1998)는 어머니의 거부적·통제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나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을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기질과 같은 선천적인 변인은 양육행동을 통해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에 영향을 주고 정서적 능력과 사회적 능력을 통해 자기통제에 영향을 준다(곽혜경, 1998; 이정란, 2003).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은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을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유아의 공격성은 이러한 매개 변인과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양육행동이 냉정하고 무반응적이고 비밀관적 일수록 유아들은 분노를 많이 표출하고, 순종적이지 않으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혜경, 박성연, 2002). 그러나 부모가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보여주는 민감하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은 자

녀의 성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자녀의 생애전반에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며 다음세대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신이 어린시절에 부모로부터 경험한 양육 방식을 그대로 반영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를 종합해 보면, 유아의 공격성에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들은 각각의 변인들이 공격성과 관련하여 그 중요성은 지적되고 있으나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유아 자신의 개인적 변인과 어머니 관련변인을 함께 살펴본 실증적 연구는 거의 없었다. 특히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성이나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찾지 못했다. 이제껏 유아의 공격성 및 부적응 문제를 다룬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 심각성과 실태파악, 남녀의 차이, 관련변인들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초보적인 공격성이 유아기 동안 발달되어 아동기·청년기·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의 관계를 살펴보는 연구는 필요하다. 따라서 공격성에 대한 유아 자신의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인 어머니의 인지적, 행동적 변인간의 관계연구가 이를 보완해 주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성과 관련이 있는 유아의 개인적 변인인 기질과 자기조절, 어머니의 인지적 변인인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행동적 변인인 양육행동을 잠재적 변인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변인들이 유아의 공격성과 어떠한 관련성 있으며 그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유아의 반사회적 특성인 공격성을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촉진하고 부모들을 위한 자녀의 효율적인 양육행동 지침과 더 나아가 유아의 정서조절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를 진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2.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전라북도 I, J시에 소재한 교육과정과 시설 규모가 비슷한 9개 유치원 만5세 유아 350명과 그들의 어머니 350명이다.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백분율
유아 성	남	178	50.9
	여	172	49.1
어머니의 연령	26세-30세	2	21.0
	31세-35세	224	45.0
	36세-40세	106	29.3
	41세이상	18	5.1
어머니의 학력	고등학교 졸업	128	36.6
	전문대 졸업	46	13.1
	대학교 졸업	168	48.0
	대학원이상	8	2.3
가정의 월평균수입	300만원미만	208	59.4
	300만원이상	142	40.6
계		350	100.0

2.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는 유아의 기질과 자기조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어머니용 자기보고식 질문지와 교사가 지각하는 유아의 공격성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변인의 구성내용은 <표 2>와 같다.

<표 2> 측정변인의 구성내용

대상	잠재변인	측정변인
유아	공격성	대인공격성, 대물공격성, 언어적 공격
	기질	정서성, 활동성, 사회성
	자기조절	자기통제-행동억제, 정서성 자기점검-자기평가, 자기결정
어머니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적극적 참여, 자율격려, 방임·허용, 통제적

1) 유아의 공격성

유아의 공격성 측정은 이영애, 이준석(2002)이 교사용으로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공격성 하위요인은 대인공격성 8문항, 대물공격성 6문항, 언어적 공격 4문항으로 총 18문항이다. 대인공격성 문항은 '친구를 위협하여 울린다. 자신이 화가 났을 때 친구들에게 화풀이를 한다', 대물공격성 문항은 '친구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빼앗거나 잘 부러뜨린다', 그리고 언어적 공격 문항은 '친구들과 말다툼을 잘 하거나 친구를 따돌리는 말을 잘 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5점 척도(1점: 전혀 하지 않는다~5점: 매우 자주한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세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95, .95, .86 수준으로 나타났다.

2) 유아의 기질

유아의 기질 측정은 Buss와 Plomin(1984)이 개발한 EAS (Emotionality, Activity, Sociability)를 임희수(1994)가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아의 기질 하위요인은 정서성 3문항, 활동성 4문항, 사회성 7문항으로 총 14문항이다. 정서성 문항은 '유아가 수줍어하거나 잘 운다', 활동성 문항은 '혼자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노는 것을 좋아한다', 사회성 문항은 '유아는 낯선 사람과도 친하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4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4점: 언제나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하위요인의 기질에 대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부정문으로 된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기질 세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62, .70, .79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측정은 이정란(2002)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하위요인은 크게 자기통제와 자기점검으로 나누어진다. 자기통제는 다시 행동억제, 정서성으로 나누어지며 자기점검은 자기평가, 자기결정으로 나누어진다.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 문항은 행동억제 10문항, 정서성 7문항, 자기평가 5문항, 자기결정 9문항으로 총 31문항이다. 행동억제 문항은 '위험한 행동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면 억제하는 편이다', 정서성 문항은 '어떤 일이나 놀이든 혼자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는 편이다', 자기평가 문항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별하여 언어로 표현하는 편이다', 자기결정 문항은 '유치원에 가기 전에 무슨 옷을 입을지 스스로

로 결정하고 혼자서 입을 수 있는 편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5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아주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 능력 네가지 요인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92, .90, .88, .80 수준으로 나타났다.

4)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측정은 Floyd, Gillion과 Costigan (1998)의 'Perceive Parenting Competence'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안·수정한 안지영(2001)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4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에 대한 효능감이 높아서 부모역할에 대한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양육효능감은 '부모역할은 많은 책임과 문제가 따르지만 나는 항상 그런 어려움을 잘 처리한다고 느낀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모역할을 어려워하는 문항은 역으로 채점하였으며, 양육효능감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89 수준으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 측정은 고을희(2001)가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고을희(2001)의 연구에서는 자녀의 각 발달영역과 관련된 양육행동과 일반적 양육행동의 2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양육행동의 척도만을 사용하였으며, 하위요인으로는 적극적 참여 8문항, 자율·격려 8문항, 방임·허용 6문항, 통제 3문항으로 총 25문항이다. 적극적 참여의 문항은 '아이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나 아이가 볼만한 책, 노래 등을 찾아본다', 자율·격려 문항은 '아이에게 무엇을 하면 안된다고 금지하기 보다는 될 수 있는 대로 해보게 하는 편이다', 방임·허용의 문항은 '아이가 공공장소에서 뛰어나다니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도 그냥 두고 보는 편이다', 통제문항은 '부모에게 버릇없이 행동하면 심하게 야단친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는 4점 척도(1점: 거의 그렇지 않다~4점: 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일상생활에서 각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양육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85, .90, .68, .61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2005년 4월 11일부터 4월 18일까지 질문지의 적절성과

문제점, 용이성등을 파악하기 위해 I시에 소재한 유치원 만5세 어머니 25명과 담임교사 2명에 의해 예비조사가 실시되었다. 예비조사 결과 연구수행에 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5년 4월 22일부터 5월 13일까지 연구대상 유치원의 해당 연령반 담임교사를 통하여 질문지를 배부·회수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해당연령의 담임교사에 의해 총 400부를 배부한 결과 364부가 회수되었으며, 분석에 부적절한 자료 14부를 제외를 제외하고 어머니와 교사가 1쌍으로 이루어진 350부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고, 연구도구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간의 상관관계

유아의 공격성, 기질과 자기조절 및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 의하면,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의 기질과 관

련하여 정서성($r=.193, p<.01$), 활동성($r=.275, p<.01$), 사회성($r=.266, p<.01$), 어머니의 양육효능감($r=.133, p<.05$), 방임·허용적인 양육행동($r=.253, p<.01$), 통제적인 양육행동($r=.104, p<.05$)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유아의 자기조절($r=-.149, p<.01$)과 적극적인 참여($r=-.220, p<.01$)와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그러나 자율·격려 양육행동은 $p<.05$ 수준에서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면,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의 기질,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양육행동(방임·허용, 통제, 적극적인 참여), 유아의 자기조절과 유의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하위영역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회귀분석

본 연구에서 설정한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변인들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으로 구분하고 종속변인에 작용하는 독립변인들을 대상으로 단계적 방법에 의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한계가 .10이상 분산팽창요인이 10이하라는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되므로 공선성의 문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표 4>에 제시된 것처럼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 결과, 기질 중 활동성의 설명력은 7.6%였으며,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이 첨가됨으로써 3.9%의 설명력이,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이 첨가됨으로써 7.3%의 설명력이, 방임·허용적인 양육행동이 첨가됨으로써 2.4%의 설명력이, 통제적인 양육행동이 첨가됨으로

<표 3>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변인들과의 상관관계분석 결과

관련변인	1	2	3	4	5	6	7	8	9	10
<u>유아의 기질</u>										
1. 정서성	1.00									
2. 활동성	.633**	1.00								
3. 사회성	.416**	.533**	1.00							
4. 유아의 자기조절	.052	.165**	.166**	1.00						
5.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107*	-.042	.024	-.167*	1.00					
<u>어머니의 양육행동</u>										
6. 적극적 참여	.082	.203**	.308**	.425**	.042	1.00				
7. 자율·격려	.057	.126*	.230**	.183**	.330	.325**	1.00			
8. 방임 허용적	-.361**	-.318**	-.351**	-.290**	.192**	-.423**	-.013	1.00		
9. 통제적	.065	.129*	.157**	.218**	-.065	.043	.055	-.503	1.00	
10. 유아의 공격성	.193**	.275**	.266**	-.149**	.133*	-.220**	.076	.253**	.104*	1.00

* $p<.05$ ** $p<.01$

〈표 4〉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종다회귀분석 결과

단계	독립변인	B	β	t	F	R ²	ΔR^2
1	기질-활동성	.274	.275	5.332***	28.425***	.076	
2	자기조절	-.256	-.200	-3.907***	22.427***	.114	.039
3	적극적 참여 양육행동	-.351	-.302	-5.584***	26.645***	.188	.073
4	방임·허용적 양육행동	.153	.177	3.213***	23.103***	.211	.024
5	통제적인 양육행동	.123	.108	2.205*	19.662***	.222	.011

*p<.05 ***p<.001

써 1.1%의 설명력이 증가되어 총 22%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 성향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방임·허용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결과와 그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공격성은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방임·허용적인 양육행동,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유아의 자기조절 능력과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과는 부적 상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의 정서성 기질의 유아란 자주 울고 보채며 쉽게 기분이 나빠지고 화를 잘 내는 특성을 지닌 유아를 말한다. 즉, 유아가 자극에 대해 얼마나 빨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가를 의미한다. Block과 Blick(1980)가 기질의 한 부분으로 정서조절을 다루고 있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의력 및 통제능력이 낮고 정서의 강도가 높은 유아는 분노와 좌절등을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외현적으로 표현하려고 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활동적이고 사회적인 기질을 지닌 유아는 또래간에 문제가 많고, 행동적 문제와 사회화 문제등에 더 많은 관련이 있다고 한 Walker, Berthelsen과 Irving(2001)의 연구와도 일치하고 있다. 이는 유아의 기질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활동적인 기질의 유아는 순한 기질의 유아에 비해 친사회적 행동이나 전반적인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표현이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를 알아본 직접적인 연구결과가 없어서 이에 대한 논의는 어려우나 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같은 인지적 변인이 유아의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이숙(1994), 이은숙(1994),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양육효능감이 양육행동을 매개로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유아의 공격성은 방임·허용적 양육행동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임·허용적 양육행동은 자녀가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하거나 부모의 개입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그냥 방치하거나 중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유아의 공격성 표출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의 공격성 행동에 기여하는 변인 중의 하나로 부모가 자녀의 공격성을 어느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공격성 수준이 다르다고 본 Olwus(1980)의 연구결과와 이원영(1983)이 부모가 자녀를 허용적으로 대할 경우 자녀의 공격성 수준이 높아진다고 한 결과와 일치한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부모가 애정을 주지 않고 강압적이며 거부적으로 대하는 것으로, 이러한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McFadyen-Ketchum, Bates, Dodge와 Petit(1996)의 결과와 일치하는 바이다.

반면에 유아 스스로 자기조절을 잘하고 어머니가 적극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유아의 공격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조절 능력이 뛰어난 유아들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의 유해한 영향에서도 잘 견디기 때문에 낮은 공격성과 관련이 있다는 Teti와 Gelfand(1991)의 연구결과와, 자신의 감정을 잘 관리하고 혼란스러울 때도 스스로를 진정시킬 줄 아는 유아는 분노유발 상황에서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Gottmans와 Katz(198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둘째,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변인들간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변인은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과 자기조절 능력, 어머니의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 방임·허용적인 양육행동, 통제적인 양육행동으로 나타났으며, 이러

한 독립변인들에 의해 유아의 공격성은 총 22%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은 항상 새로운 것을 탐색하고자 하는 호기심으로 인해 과도한 활동을 유발하게 되고 오히려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기질은 유아의 공격성을 조장하며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 이는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협조성과 안정성이 줄어들고, 또래와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주위가 산만하여 또래간에 갈등이 자주 나타난다고 한 홍계옥(2001)의 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 그리고 자기조절 능력이 낮은 유아들은 사려성이 결핍되어 또래관계에 있어서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어서 사회·정서적으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 Goodman 등(1993), Plakowski(199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유아가 적극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긍정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 할수록 공격성에 적은 영향을 준다는 김민정, 도현심(2001), Hart 등(200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러나 박민정, 최보가(2004)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은 본 연구결과와 다른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박민정, 최보가(2004)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는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행동을 묻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현재의 행동을 묻는 것으로 양육행동 척도의 차이와 연구대상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방임·허용적인 양육행동과 통제적인 양육행동과 같은 거부적이고 부정적인 양육행동은 유아가 바람직한 정서를 조절하는데 방해요인으로 작용을 하여 결과적으로 공격적인 특성이 나타난다고 한 박성연, 고은주(2004), 이원영(1983), 정준미(1998), Gropeter(1997), Hart 등(2000), Hoews(1990), Pery, Kusel과 Pery(1998)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즉, 어머니의 방임·허용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행동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유발하여 자녀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한다는 좌절된 경험을 주므로 결국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유아가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을 많이 경험하고,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많이 경험할수록, 자녀의 공격적 성향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Rubin 등(1998)은 부정적인 양육행동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유아의 기질과 연관되었을 때 가장 공격적이 된다는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유아의 공격성을 가장 유의하게 예측하는 변인 중의 하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결과들로 인해 유아의 기질 중 활동성 성향

이 높을수록, 자기조절 능력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적극적인 참여 양육행동을 적게 할수록, 방임·허용과 통제적인 양육행동을 많이 할수록 유아의 공격성 수준이 높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연구를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 개인적인 변인과 어머니의 인지적, 행동적인 변인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 이외의 다양한 변인들이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변인들은 모두 부모와 교사에 의해 측정되었다. 부모와 교사는 모두 유아의 일상생활을 가까이에서 지켜볼 수 있는 사람이므로 성인 보고 측정 방법은 유아의 행동을 평가하는데 객관성이 있는 평가방법으로 인정받고 있다(Miller, 1972). 그러나 본 연구에서 교사가 평가하는 유아의 공격성이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거나 그 유의미한 정도가 낮게 나타난 것은 성인보고의 한계로 인해 유아의 공격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격적인 행동은 유아들의 집단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 공격 행위들은 교사의 눈 밖에서 행해지고 있어 공격의 피해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보복행위가 두려워 침묵을 지키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제대로 교사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제한점은 추후연구에서 심층관찰 혹은 면접과 같은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셋째, 연구도구로서 질문지를 사용한 결과, 중다 측정의 원칙을 고려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기질 및 자기조절과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및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므로 유아의 개인 내적인 측면과 환경적인 측면에서의 영향력 알아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을 어머니의 변인과 유아의 공격성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봄으로써,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한 사회·정서발달 측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공격성에 대한 효율적인 예방 및 감소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유아의 부적응 및 문제해결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폭력 방지와 사회적 능력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가정에서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가정용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주제어 : 공격성, 기질, 자기조절, 양육효능감, 양육행동

참 고 문 헌

- 고을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및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공인숙 (1989). 부모의 온정 및 통제와 아동의 역량에 대한 자기지각. *아동학회지*, 10(1), 64-78.
- 곽혜경 (1996). 유아의 기질, 유아가 제공한 통제계기, 어머니의 통제책략과 유아의 자기통제 행동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정, 도현심 (2001). 부모의 양육행동, 부부갈등 및 아동의 형제자매와 아동의 공격성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2(2), 149-166.
- 박민정, 최보가 (2004). 청소년의 관계적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 *한국가정관리학회*, 22(4), 95-104.
-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남아의 공격성간의 관계 및 세대간 전이. *아동학회지*, 23(5), 35-50.
- 박성연, 고은주 (2004). 보육경험과 아동특성 및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 22(2), 23-35.
- 박정순 (1999). 사회적 관심 증진 놀이집단 상담이 아동의 공격성 감소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혜경, 박성연 (200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남아의 정서 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0(8), 87-98.
- 안미경 (1996). 아동의 자기조절 능력 및 기질과 어머니의 양육행동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안지영 (2001). 아동의 공격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원영미 (1990). 유아의 기질 및 그 관련변수와 유치원 아동의 적응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 숙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영애, 이준석(2002). 아동 공격성 검사지의 타당도 연구. *교육학논총*, 22(2), 143-160.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 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 발달과의 관련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은숙 (1994). 아동과 어머니의 자기 효능감과 아동 우월성의 관계.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정란 (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변인에 대한 구조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임희수 (1994). 첫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및 관련 변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사회 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전효정 (2001).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증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공격성 방지 및 사회성 증진을 위한 이론적 모형. *영유아보육연구*, 7(1), 1-9.
- 정은희, 이미숙 (2004).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아동의 공격성과 또래 괴롭힘 피해 및 피해자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4), 115-127.
- 정준미 (1998).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 체벌과의 관계모형.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홍계옥 (2001). 어머니의 자기-지각, 양육행동 및 유아의 기질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 *아동학회지*, 22(2), 2-14.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Belsky, J, Hsieh, K, Jaffe, S, Silva, P (2001). Child-rearing antecedents of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you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37(6), 801-813.
- Block, JH, Blick, J (1980). The role of ego-control of ego-resiliency in the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Andrew Collins.(Eds.), *Development of cognition, affect, and social relation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39-101.
- Crick, N, Grotpeter, J (1995). Relational aggression, gender, and social-psychologica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6, 710-722.
- Dodge, K, Coie, J (1987).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factors i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958-966.
- Dorsey, S, Klein, K, Forehand, D, Family Health Project Research Group (1999). Parenting self-efficacy of HIV-infected mothers: The role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1, 295-305.
- Feshbach, ND (1963). The relationship between empathy and aggression in two group. *Development*

- Psychologist*, 16, 141-146.
- Froid, A, Macaulay, J, Thome, PR (1977). Are women always aggressive than men? Are view of the experimental literature. *Psychological Bulletin*, 84(4), 634-660.
- Goodman, SH, Brogan, D, Lynch, ME, Feilding, B (1993).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in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Child Development*, 64, 516-531.
- Gottman, JM, Katz, LF (1989). Effects of marital discord on young children's peer interaction and health.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73-381.
- Gropeter, LL (1997).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amily relationship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Hart, CH, Nelson, DA, Robinson, CC, Olsen, SF, McNeilly-Choque, MK, Porter, CL, McKee, TR (2000). Russian parenting styles and family processes: Linkages with subtypes of victimization and aggression. In K. A. Kems., J. M. Contretras., & A. M. Neal-Barmett. (Eds.), *Family and peers: Linking two social worlds*. Westport, Praeger.
- Howes, C (1990). Can age of entry into child care and the quality of child care predict adjustment in kindergarten. *Development Psychology*, 26, 292-303.
- Kokanska, G, Coy, K, Murray, K (2001). Th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in the first four years of life. *Child Development*, 72, 1091-1111.
- Loeber, R, Hay, DF (1997). Key issues in the development of aggression and violence from childhood to early adulthood.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8, 371-410.
- McFadyen-Ketchum, SA, Bates, JE, Dodge, KA, Petit, GS (1996). Patterns of change in early childhood aggressive disruptive behavior. Gender differences in predictions from early coercive and affectionate mother-child interactions. *Child Development*, 67, 2417-2433.
- Miller, LC (1972). Social behavior check list: An inventory of deviant behavior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134-144.
- Olwus, D (1980). Familial and temperamental determinants of aggressive behavior in adolescent boys: A causal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16, 644-660.
- Plakowski, M (1994). Linking self-social control with deviance: Illuminating the structure underlying a general theory of crime and its relation to deviant activity. *Journal of Quantitative Criminology*, 10(1), 156-164.
- Pery, DG, Kusel, SJ, Pery, LC (199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807-814.
- Rubin, K, Hastings, P, Chen, X, Stewart, S, McNichol, K (1998). Intrapersonal and maternal correlates of aggression, conflict, and externalizing problems in toddlers. *Child Development*, 69(6), 1614-1629.
- Teti, OM, Gelfand, DM (1991). Behavioral competence among mothers of infants on the first year: The mediational role of maternal self-efficacy. *Child Development*, 62, 918-929.
- Tremblay, RE (2000). The development of aggressive behavior during childhood: What have we learned in the past century?.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4(2), 129-141.
- Walker, M, Berthelsen, D, Irving, K (2001). Temperament and peer acceptance in early childhood: Sex and social status differences. *Child Study Journal*, 31(3), 177-192.

(2005. 09. 01 접수; 2005. 10. 15 채택)